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6월 16일

CUOMO 주지사와 의회 리더들, 뉴욕주 수제 주류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합의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수제 주류 생산자에게 부과된 부담스런 요건을 삭감하고 수제품의 마케팅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이 성장 산업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을 지속할 법안에 의회 리더들과 합의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제조업자들이 “병 단위로” 및 “잔 단위로” 서빙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농장 양조장이 제품 샘플을 판매하고 제공할 수 있는 소매점의 증대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품 마케팅 기회를 늘려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더 많은 제품을 더 낮은 면허료로 생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제2차 뉴욕주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실주 서밋의 결과입니다. 이 서밋은 뉴욕주 주류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농장 기반 주류 부문과 농업 생산자 및 정부 관리들을 규합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주류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의미함을 인식하며 우리는 부담스런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자들이 더 많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지원을 지속하여 자랑스럽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비즈니스를 위해 진실로 열려있으며 이 법안은 우리의 접근법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니즈와 우려에 대응적이 되고 전주의 중요 산업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수고하신 의회 의원들께 찬사를 보내며 그 통과를 기대합니다.”

상원 공동리더 Dean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담스런 규제를 삭감하고 수제 주류 생산자 지원을 늘림으로써 뉴욕주는 그들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산업은 업스테이트를 포함한 우리의 많은 지역사회의 관광을 진흥하고 경제 활동을 생성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부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상원 공동리더 Jeff Kl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수제 양조업이 계속 꽃피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 번영 산업을 진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밋과 IDC가 개발한 **Pride of New York** 같은 유사 법안의 직접적 결과로 우리는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상원의원 **Carl L. Marcell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뉴욕주가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뉴요커들의 니즈에 대응적이도록 하는 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수제 음료의 점증하는 인기를 활용하여 이 법안은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가져가는 데 방해가 되는 부담스런 장애물을 제거하여 우리 주의 주류 제조업자들이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의장 **Sheldon Silv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수제 주류 제조업자들은 뉴욕주 최고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동시에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활용해 왔습니다. 결과는 누구든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하원은 이 생산자들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들을 규합하여 이 급속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자들을 옹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를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고 전국의 휴가자 및 관광객을 환영하는 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생산자들에 대한 거추장스런 제약을 줄이고 이러한 수제품을 마케팅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법안 합의는 수제품 생산자, 지역 경제 및 뉴욕주에 이로울 중요한 부양입니다.”

주류 제조업자 활동을 규제하는 현재의 법률은 과도하게 제약적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자는 알코올 음료 생산의 크지 않은 증가에 대해서도 제조업자 면허료를 증가시키는 법률에 대항하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제품 마케팅 능력이 제한됩니다.

이 법안의 조치들:

-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 한도 증대;
- 농장 양조장의 지점 운영 허용;
- 모든 제조업자들이 제조한 알코올 음료를 별도 면허 없이 병 또는 잔으로 시음 실시 및 판매하는 것을 허용;
- 구내 시음 및 소비를 제의할 때 제조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식품 요건을 완화.

이 법안은 통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수제 주류 제조업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소규모 양조장 수가 2011년의 40에서 오늘날 100으로 150% 증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uomo** 지사의 2012년 농장양조법 시행의 결과로 주전역에 걸쳐 48개의 새 양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주의 농장 증류주 양조장 수는 2011년 1/4분기의 10에서 오늘날 52로 420% 증가하였으며, 농장 포도주

양조장 수는 2011년 의 195에서 오늘날 289로 근 50%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 Cuomo 지사는 뉴욕주가 미국 제2위의 사과 생산지로 올라선 것을 활용하여 농장과실주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중요한 농업을 더욱 진흥하기 위한 법률 변경을 구현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5일 발효된 이 새 법률은 이미 5개의 신규 농장 과실주 양조장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이 5개의 신규 농장 과실주 양조장을 포함하여 뉴욕주는 이제 31개의 하드사이드 제조업체를 보유하여 2011년의 5에서 500%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주양조협회 회장 David Katleski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함께 수제 주류 산업의 니즈가 바뀌는데 이 법안은 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맥주, 포도주, 증류주, 과실주 부문들은 합쳐서 뉴욕주에 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와 협력해 이 법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관심사에 대응한 이 행정부와 SLA에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뉴욕주는 양조장당 인구 수가 165로 미국에서 26위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순위를 올리고 맥주의 현재 경제 기여 22억 달러를 증대하기 위한 조항을 허용합니다.”

뉴욕주포도주포도재단 이사장 Jim Trezis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포도주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의 커다란 개선과 '기업가적 정부'의 예를 나타냅니다. 다양한 조항들이 서류를 간소화 및 통합하고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생산 효율을 가능하게 하여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새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은 이미 뉴욕주에 년 경제 혜택으로 48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우리가 그 기여를 증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장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는 업계 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 법안을 작성한 Cuomo 지사의 리더십, 뉴욕주 주류청과 개념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제휴한 상원과 하원에 감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